

“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지자체 협업”

민주당, DJ센터서 광주전남 국정과제 보고대회

5·18 진상규명위 설치, 2020년 도시 전문인력 양성

문재인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관련법을 제정해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과 최초 발표명령자, 행방불명자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제시된 국정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2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계획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대회에선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에서 공개된 국정과제 중 지역발전 과제와 비전을 별도로 간추려 소개했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국정과제 발표 당시 눈길을 끌었던 ‘5·18 진상의 한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와 관련, 정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최초 발표명령자 ▲행방불명자 진상 ▲민간인 헬기 사격 등 핵심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상 규명 후 추가 희생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진행하고 개헌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의 성공을 위해서도 창·제작센터(예술기술융합센터)를 강화하고 고급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세부 계획도 설명했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정부-지자체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밝힌 국정과제 중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의 경우 광주는 친환경 부품용,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를 각각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특히,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일자리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국가 재난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통해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에 나선다. 전남의 경우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추진을 약속받았고, 고흥국가중합비행성능시험장을 거점별 드론 종합 클러스터로 구축한 뒤 ‘농업용 로봇(드론)센터 및 실증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국정과제 중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특화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시설·콘텐츠 등을 종합 개선하고 3~4개 지자체를 관광권으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추진하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여수, 순천, 보성, 광양’

과 ‘광주, 목포, 담양, 나주’ 권역을 연계하는 2개 테마여행선이 선정됐다.

이 밖에 광양항 항만매립지를 에너지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묘도 개발이 추진(울착공)된다.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발표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오는 2022년까지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 헬기 인프라를 늘리고, 권역의상센터 구축을 완료한 뒤 심혈관 센터를 지정·설립하게 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개척하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10년 동안 개혁하고자 했지만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보수정당에게 정권이 넘어가 국민이 ‘이제 나라냐’는 한탄을 했다”면서 “이제 나라에 떨어진 나라경제를 살려내고 나라를 나라답게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선진국으로의 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대구시 ‘군공항 이전’ 공동 대응

광주시의회 이전특별위원회

마스터플랜 조속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문태환)가 비슷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안고 있는 수원과 대구를 잇달아 방문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27일 대구에서 양 시의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합동 보고회를 열고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문태환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전남과 광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공동 사업이다”면서 “이전지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수원시의 군공항이전추진단을 방문하여 수원시의 그간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청취했으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과제인 이전 지역의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사업은 수조원이 소요되는 국가사무인 만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문태환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전남과 광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공동 사업이다”면서 “이전지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수원시의 군공항이전추진단을 방문하여 수원시의 그간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청취했으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과제인 이전 지역의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양과동에 들어선다

오늘 기공식... 127억 투입

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이 광주 서구 양과동 일대에 조성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2012년 광역시 차지구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공모에 선정돼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한다.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50억원 등 총 사업비 127억원이 투입된다. 기공식은 28일 위탁수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양과동 현장에서 열린다.

남구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공원 등 광

주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세부설계 및 감리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은 부지 4만9000여㎡ 규모로 조성되며 ▲곤충전시체험장 ▲농업전시체험장 ▲화훼유리온실 ▲과일정원 ▲생태연못 ▲축육장 등이 들어선다.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남구 관계자는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고씨을농이 테마파크, 에너지 밸리 등 주변 문화관광자원 및 산업단지와 연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관급공사비 과다 책정·불필요 공사 예산 낭비 여전

전남도 감사서 20건 적발

관급공사 현장에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공정을 반영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12일부터 7월6일까지 전남지역 20개 건설현장에서 민·관 합동 기동감사를 벌여 모두 20건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 훈계, 경고, 벌점 부과 등을 하고 6억8400만원에 대해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무안 영산강~승달산 만남의길 조성사업에서는 석축쌓기에 필요한 석재를 현장에서 조달가능함에도 별도로 구입키로해 과다계상했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공사금액에 포함해 적발됐다. 광양 오수관로 정비 사업에서는 마을 안길 도로 폭이 좁아 300mm 맨홀이 적정 한데도 900mm 규격이 반영된 것으로 지적됐다.

신안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서는 필요 없는 고르기 공정이 반영됐으며 점토 재를 사업장 인근 5km 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데도 운반 거리를 13.1km로 산정해 예산을 낭비했다. 전남도는 과다 책정된 금액 1억8000만원을 감액했다.

장성 휴양타운 조성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이 나오고 시행해야 하는데도 공사를 먼저 발주해 계약 체결 후 2년6개월이 지나고도 펜션 등 건축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밖에 안전조치 소홀, 준공검사 부실, 시공착오 등도 지적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창 들녘서 만드리풍년제

19회 만드리풍년제가 27일 광주시 서구 서창 세동들녘에서 열렸다. 농민들이 눈에 들어가 김매기를 하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만드리는 음력 7월 15일인 백중(百中) 무렵 한 해 농사 풍년을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김을 매는 농경문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블라인드 채용 외면하는 광주지역 공공기관들

9개기관 채용공고 16건 중 3건만 준수

광주지역 대다수 공공기관이 최근 정부가 배포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 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2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

임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조사한 결과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난 13일 이후 공개된 광주지역 9개 기관의 채용공고 총 16건 가운데 3건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조사 대상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배포 다음 날인 지난 14일부터 25

일까지 광주 근무지 기준 공공기관이 낸 채용공고다.

채용공고 중 3건을 제외한 13건은 직무 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그중 가장 많이 요구된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다. 이어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 성적(9건), 사진(5건), 신체 조건(1건), 종교(1건) 등의 순이었다.

어학능력이 있어야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나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 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인적사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나 특정 출신자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4만7천원부터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1호

첨단우리병원

부분마취! 최소절개! 단기입원!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허리와 목 질환의 15년간 임상 경험!

척추, 관절, 골절, 정형외과 수술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